

# 지·덕·노·체의 실천



이영애 / 한국 4-H 본부회장

**한** 국4-H본부 회장으로 취임한지 어언 2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마음과 지·덕·노·체의 4-H이념과 함께 좋은 것을 더욱 좋게(To make the best better), 실천으로 배우자(Learn by doing)라는 4-H금언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회에 4-H운동을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람찬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4-H회원 5개년 계획(2001~5)을 수립하여 회원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4-H본부는 4-H선배지도자들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H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서 행운과 성취를 상징하는 네잎클로바를 4-H앰블럼으로 삼고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와같이 4-H운동은 9~29세의 청소년들에게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서 지(智, Head : 명석한 머리), 덕(德, Heart : 충성스런 마음), 노(勞, Hands : 부지런한 손), 체(體, Health : 건강한 몸)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서 훌륭한 민주시민 의식과 농심(農心)을 함양시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4-H운동은 오늘날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산업간의 개발격차, 환경파괴와 오염, 늘어나는 사회병리와 실종되는 인간성 등 사회불안 요인들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

여금 4-H이념을 실제로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1947년에 미국으로부터 처음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는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4-H운동은 이제 사회교육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4-H운동은 내일의 우리사회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유년기(幼年期)부터 스스로의 인격을 가르치고 아울러 그 사회의 시대적 소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청소년 교육의 이념이라고 할 때 이와같은 교육이념을 실천하려는 사회교육운동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 운동과 다른점은 농심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여 영농인(榮農人) 또는 친환경농업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가는데 있다. 청소년교육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육, 덕육, 체육에서 노육을 추가하여 전인적(全人的) 인격을 형성토록 현장교육과 과제실천 등을 4-H활동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의 80여개 국가에서 전개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청소년운동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반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4-H운동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발전과 농촌의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끌어 왔고 새마을 운동의 정착에도 큰 뜻을 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사랑, 농촌사랑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개성과 창의력을 북돋아주면서 꿈(vision)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심어주는 제2의 4-H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